문화광장

박 태 수
제주국제명상센터

관점의 변화는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한다

나는 가끔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 때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럴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은 "아무리 사는 게 힘들더라도 혼자 살기보다는 앓아누운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다. 설사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든든하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요즈음 같으면 어림없는 말이다.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세상이다. 나의 경우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갈 때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러나 아내가 어디 가고 없을 때는 왠지 허전하고 힘이 빠지면서 발걸음이 무겁다. 우리의 일상에서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괜히 짜증이 나고 함께 하기 싫어진다. 가족의 소중함, 빈자리의 의미를 잘 모르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현상이다.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붕괴되기 쉽다. 빅토르 프랭클에 의하면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포로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1944년 성탄절에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희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망과 낙담이 퍼지면서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희망이나 의지할 정신적 기둥'을 발견한 사람, 미래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일'이 있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적 저항력을 가질 수가 있다. 프랭클의 경우도 아내와 부모가 수용소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빼앗긴 그의 원고를 찾아 프랑클 심리학의 체계를 발표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으니 그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정신적인 지주에 의지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삶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의지가 달라진다.

내가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나 따위는 있어 봤자 짐이야"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는 아무 데도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면 힘이 빠지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기 싫어진다.

가끔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어떨 때는 그 갈등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해 그 갈등에 매여 있다. 이럴 때 빅토르 프랭클은 그러한 나의 의식을 재구조화(reframing)하라고 한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가 나에게 보낸 부정적인 의식은 내가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므로 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속 좁은 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이다.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나의 삶은 새롭게 창조된다.

사설

제2공항 갈등 해법, 제주도가 제시하라

제주사회 최대 현안이었던 제2공항 건설이 추진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경부는 6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조건부 협의' 결정이다. 이로써 7년 넘게 표류해온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 결정이 초래할 후폭풍이다. 분열된 도민사회를 봉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2공항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찬반 측은 앞으로 더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제주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협의가 결정나자 찬반 측은 당장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찬성 측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제2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반면 반대 측은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도정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 결정 행정 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도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항은 국가 주요 시설로서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효성이 없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분열된 도민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영훈 지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의 권한행사 방안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계획 조례안 혜안이 필요하다

제주 중산간 보호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상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규제 기준이 모호해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입법예고기간에 157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은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중산간 보호를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뜨거운 감자가 된 조례안을 넘겨받은 도의회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도의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갖고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중산간 보호와 재산권 침해 방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혜안(慧眼)이 필요한 때다.

열린마당

친절과 다짐

오 현 석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친구에게는 따뜻한 공감을 해주며, 누군가에게는 작은 호의를 베풂으로써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친절은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을 정도로 공직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중 하나이다.

공직 생활에 있어 친절은 함께 할 동지 같은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데 있어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이 많을 것이고 그런 순간에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나와 민원인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인을 응대하다 보면 설명해줘도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편의만을 봐달라고 하는 민원인들도 흔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공무원을 선택해서 들어왔을 때의 내 선택을 믿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임을 명심하겠다.

민원인의 입장에서의 친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근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통계와 지표 활용을 행정 전반 일상화"

오지사, 사회지표 보고서 언급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사회지표 조사보고서를 언급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강조.

오 지사는 "한 예로 인구통계 중 세대별 분포에서 30대의 증가세는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는 관광, 고향사랑기부제, 워케이션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통계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

이어 "앞으로 추경을 비롯해 예산 설계 시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예산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통계와 지표 활용을 행정 전반에 일상화해 달라"고 당부. 고대로기자

예래동 '착한가게' 발굴 적극

○…서귀포시 예래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관진)가 협력해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착한가게 발굴에 적극 나서며 눈길.

이들은 현재 착한가게 22곳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지역 단체 및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요식업,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

나의웅 예래동장은 "풍족한 세상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이 존재한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들을 민간영역에서 채워 줄 수 있도록 착한가게 등 복지시책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백금탁기자

부 고

양성환 어머니 **남양홍씨 동희(향년 69세)**께서 서기 2023년 3월 5일 22시 5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3년 3월 7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3년 3월 8일(수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 S중앙병원장례식장 6분향실
▶장 지 : 신광교회 공동묘지

남 편 양동옥
아 들 양성환
딸 양은정
지 혜
사 위 이순환

※ 연락처 : 양동옥 010-6644-7717

부 고

고기영(前 북제주군청 계장·평 황금공인중개사사무소), **고승주**(前 애월농협 상임이사) 어머니 **인동장씨 정화(향년 103세)**께서 서기 2023년 3월 6일 07시 2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3년 3월 8일(수요일)
▶발인일시 : 2023년 3월 9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 양지공원→천왕사

아 들 고기영 며느리 김안실
승주 현미순
딸 고순자 사 위 양용구(故)
순옥 김방수
손 고윤호 외 손 양공진
동욱 공훈
유진 김재윤
은경 소영
경란 희정

※ 연락처 : 고기영 010-4690-2716
고승주 010-3692-626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연화(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7일

아 들 강용택 며느리 홍복순
창남
창효 홍주희
딸 강성심
성자 사 위 남기문
영심 윤종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비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차고지/주차장

市의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No.1 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 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제** (별장 건축 가능)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